

2호선 논란 계속된 광주도시철도 장기 표류

순환선·남북선 절충 장점 모은 대안 있다

전문가들 '순환연결형' '대순환형' 제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기존 '순환형'과 '남북형' 등 2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을 하루빨리 끝내고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녹색교통망 확충 정책으로 모처럼 건설의 호재를 맞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전문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압축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은 '순환형'과 '남북형' 등 2개안이다. '순환형'은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총연장 27.40km의 순환선(백운광장~광주역~터미널~시청~백운광장~효천역)이다. 남북형은 효천역~백운광장~조선대~전남대~첨단단지 등 광주의 남북을 크게 가로지르는 선형이다.

시는 확정노선이 5년이 경과할 경우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철도법에 따라 남북형을 추가

한 2개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광주서구 주민 등이 '남북형 단일안이 체택될 경우 역세권 개발과 같은 노선권익을 누릴 수 없다'며 반발, 노선확정이 유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논란이 불가피한 순환형·남북형 2개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기 도시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절충형 대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순환연결형'(기존 순환형+상부 반원형 동시 추진)과 '대순환형'(남북형+2호선 동시 착공) 등이다.

'순환 연결형'은 순환형 노선을 우선 착공한 뒤, 그 노선에 '반고리형'의 노선(일곡~첨단지구 등 북·서쪽 경유)을 연결하는 안다. 이는 기존 순환선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일관성을 유지하고 첨단·일곡 지구 등 신도심의 발전도 기약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순환형'은 남북형에다 장기 검토 노선인 3호선(첨단·수완~시청~

금호·풍암지구~백운광장)을 포함시킨 2호선을 건설하자는 안다. 이 노선은 광주를 광범위하게 순회하는 선형으로, 도심 원거리의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들 노선이 사업비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순환형과 순환·연결형이 각각 1조 8천억, 2조 1천억원으로, 광주시가 한 후 10년(도시철도 최장 건설기간) 동안 각각 400, 8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노선체택에 따른 사업비와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년 광주의 발전축이 될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노선논란으로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며 "2호선 선형 논란이 오는 6월까지 끝들어지지 않을 경우 2010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2호선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난을 덜어주려고 실시 중인 환매조건

The Kwangju Ilbo



축구장의 봄

낮 최고기온이 15.7도까지 오르는 등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진 8일 프로축구 광주 상무와 대전 시티즌의 시즌 개막전이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에 2만 5천 762명의 시민들이 찾아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며 휴일을 만끽했다. 광주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기원' 행사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밝혔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31 대책에 따라 범인은 55~65%, 개인 60~70% 수준으로 중과 세되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비사업용 대안 양도세 인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청업체가 대물로 받은 미분양아파트

정부에서 사들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은 강제적인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이 점은 하도급 건설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난을 덜어주려고 실시 중인 환매조건

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또는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에 이어 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우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1st The World Slow Walking Festival

2009년 4월 18일(토) ~ 4월 19일(일)

개막식 - 18일(토) PM 2:00(원드 신시티사거리)

1일차 (4월 18일) - 원도 신시티사거리, 해변 공원

개막식, 세계슬로우걷기(유채꽃과 함께-신시 광사거리),

슬로우마사지, 글로벌 포럼, MBC 가요페스티벌 공개방송

2일차 (4월 19일) - 철산도

2009남도슬로우푸드문화관, 세계슬로우걷기(비단awan·철산도·안동제 기자식)

밀사 신시티사거리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철산도 프로그램은 신안마을근처로 흘러나온 철산사를 통한 사찰쓰당이 필요합니다.

원도 철산도 풍물 산악 이동모금은 사천 친기산천자립에 헌금에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 WWW.SLOWCITYWANDO.com

■전화문의 : 080-5760-5750

■주 소 : 원도군 (세계슬로우걷기본부)

■주 원 : 청장면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슬로우시티본부, 원도군청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산한 암컷 8번은 2007년 9월과 2008년 8월에 목에 올무가 걸린 것을 발견해 치료한 뒤 다시 방사되는 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컷 10번 역시 2006년 9월 허리에 올무가 걸린 것을 치료해 재방사된 바 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3월 14~15일과 28~29일 두 차례에 걸쳐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를 주제로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추진키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거울



신지애 LPGA 시즌 첫 우승

HSBC 위민스 챔피언스 2타차 역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사진)가 대역전력을 연출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다.

〈관련기사 18면〉

신지애는 8일 싱가포르 타나메라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우승을 눈앞에 뒀던 험은 18홀(파5)에서 더블보기를 한 뒤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신지애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연합뉴스

한국, 중국 대파 본선행

14-0...오늘 일본과 순위결정전



한국야구대표팀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2회 연속 2라운드에 올랐다.

〈관련기사 18면〉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WBC

아시아라운드 폐자부활 2차전에서 선발 윤석민의 허투속에 이범호의 2점홈런 등 장단 10안타와 사사구 10개로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략해 14-0, 7회 클로징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연승을 거둔 일본과 함께 14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벌어지는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리산에 경사났네

방사 반달곰 두마리 2세 출산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아생상태에서 2세 출산에 성공(시진), 국내 고유종 복원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 반달가슴곰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29호다.

환경부는 2005년 북한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 암컷 8번(북한산·5-

세)과 10번(북한산·5세)이 각각 새끼 한 마리를 출산한 것을 2월 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출산한 반달곰은 모두 지난해 5~9월 사이 교미를 했으며 12월 중 바위굴에서 동면을 시작해 1월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송동주 센터장은 "방사한 반달곰이 정상적인 먹이섭취 활동과 훌륭한 겨울철 동면과정을 거쳐 새끼를 출산하면 자연에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은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밀

